

韓菓類의 利用實態 및 市販 韓菓類의 品質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Utilization Status of Korean Traditional Cookies and the Evaluation of their Commercial Products' Quality

대전실업전문대학 식품영양과
부교수 任 菊 二
강 사 金 宣 孝

Dept. of Food & Nutrition, Deajeon Junior College

Associate Professor; **Kook Yi Yim**

Lecturer; **Sun Hyo Kim**

<目 次>

I. 緒 論

IV. 結 論

II. 研究方法

參考文獻

III. 結果 및 論議

<Abstract>

The present survey was designed to find out the utilization status of Korean traditional cookies and the evaluation degrees of their commercial products' quality by subjects.

The subjects were 530 housewives randomly selected who lived in Seoul, Deajeon, Youngju city (Kyoung Buk Province area), and Sechon khun (Chung Nam province area).

We performed this survey from November 16 to 28, 1987 by questionnaire method.

The results obtain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he subjects' home, 25 kinds of Korean traditional cookies were used. All of them Youmilkwa and Kangjeong type were used more frequently than the other types and Jeonkwa, Dasik, and Suksilkwa were used scarcely.

2) Korean traditional cookies which were showed more than 20% of utilization ratio were follows; Yackwa (74.4%), Sanja (26.8%), Taraekwa (22.6%), Seban-kangjeong (21.7 %).

3) On New Year's day, Korean traditional cookies were used more frequently than harvest festival day but their utilization ratio were very low on each day of them.

4) On Korean festival day, the utilization ratio of western cookies was follows; New Year's day was 10%, and harvest festival day was 6.2%.

5) On ceremonial day, Youmilkwa and Kangjeong type were used more frequently than Jeonkwa, Dasik, and Suksilkwa type.

6) All of ceremonial days, Korean traditional cookies were used most frequently on the 60th birth day and their utilization ratio was extremely low on the 100th day after birth, 1st birth day, and funeral day.

7) Generally western cookies were used more frequently than Korean traditional cookies on the birth day of children and adults.

8) Convenience (64.8%) was the most favored cause purchasing the commercial products but many subjects (37.0%) wanted to make the Korean traditional cookies at home.

9) All the quality properties of commercial products, taste, package, and storage property were favored but price and hygienic property were poorly evaluated by subjects. The evaluation about taste and package property of commercial products was affected by academic career ($p < 0.05$), and shelf life was affected by age ($p < 0.01$) significantly. And hygienic property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and academic career respectively. ($p < 0.01$)

I. 緒 論

우리나라 傳來의 菓釘類를 外來의 菓子와 구별하여 韓菓類라 하며 일명 造果라고도 한다. 이는 生果와 비교하여 생긴 用語로서 조상의 祭禮에 使用되는 實果를 구할 수 없는 季節에 穀粉과 꿀로 과일의 형태를 만들고 果樹의 가지를 꽃아서 祭需로 삼았던 데에서 비롯되었다.^{1~4)}

韓菓는 農耕文化의 進展에 따른 穀物產出의 增加와 崇佛思潮에서 오는 肉食의 기피를 배경으로 신라, 고려시대에 크게 發達된 음식으로 祭禮, 婚禮 및 宴會 등에 必須의으로 使用되어 왔다.^{1~9)}

韓菓類는 그 製造方法에 따라 유밀과류, 강정·산자류, 다식류, 전과류, 숙실과류, 과편류 및 엿강정류로 구분되며 각각 독특한 官能의 品質特性을 갖고 있다.^{1~4)}

初期부터 韓菓類는 別味食, 特別食, 行事食으로서 貴한 飲食으로 우대를 받아 왔고 요즘에도 行事食으로 韓菓類를 이용하고 있다.^{1~3)9)}

그러나 오늘날에는 急速한 經濟發展과 外來文化의 流入으로 生活樣式이 變化됨에 따라 食習慣의 變化, 儀禮의 簡素化와 調理의 簡便化에 對한 要求增大와

함께 食品工業의 發達에 依한 각종 後食類의 개발로 家庭에서 韓菓類의 製造 및 利用은 쇠퇴되어 가고 있으며 대중의 嗜好에서 韓菓類가 점차 소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傳統食品의 產業化를 통한 韓菓類의 大量普及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를 위해 調理科學의 研究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즉 韓菓類의 관능적, 영양적, 위생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및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새로운 포장재 및 저장방법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韓菓類가 우리나라 食生活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고 앞으로 韓菓類의 產業化方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자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韓菓類의 利用實態와 市販 韓菓類의 品質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II. 研究方法

1. 調查對象 및 期間

서울시(대도시), 충남 대전시(중도시), 경북 영주시(소도시), 충남 서천군(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부들중 무작위로 1,000명을 추출하여 조사하였고 그중

통계처리가 가능한 530명을 주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1987년 11월 16일에서 1987년 11월 28일까지 13일간이었다.

<표 1> 연령, 학력 및 거주지 분포

내 용	구 분	N	%
연 령	39세 이하	83	15.7
	40 ~49세	317	59.8
	50세 이상	130	24.5
학 력	국 줄	282	53.2
	중 줄	114	21.5
	고 줄	87	16.4
	대 줄 이상	47	8.9
거주지	농 어 촌	232	43.8
	소 도 시	27	5.1
	중 도 시	213	40.2
	대 도 시	58	10.9
계		530	100.0

2. 調查方法 및 內容

설문지법에 의하여 명절, 의례시 한과류의 이용실태 및 주부의 연령, 학력별로 시판 한과류의 품질특성에 대한 평가를 5단계 척도에 의해 조사하였다. 연령구분은 39세 이하, 40~49세, 50세 이상의 3군으로 하였고 학력은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3. 資料處理

명절, 의례시 한과류의 이용실태는 백분율에 의해, 주부의 연령 및 학력이 시판 한과류의 품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χ^2 검증에 의해 분석하였다.

4. 研究의 制限點

본 조사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주부들만 대상으로 하였고 시판 한과류의 품질 평가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한과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나 확대해석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표 2> 가정에서 이용하는 한과류

N=530, N(%)

한과명	이 용 율			한과명	이 용 율				
	직접만들	구입하거나 의뢰함	계		직접만들	구입하거나 의뢰함	계		
油蜜菓類				茶食類					
약 과	178(33.6)	218(41.1)	396(74.7)	쌀 다 식	47(8.9)	16(3.0)	63(11.9)		
만 두 과	47(8.9)	14(2.6)	61(11.5)	밤 다 식	14(2.6)	1(0.2)	15(2.8)		
타 래 과	105(19.8)	15(2.8)	120(22.6)	송화다식	2(0.4)	1(0.2)	3(0.6)		
대 잣 과	4(0.8)	2(0.4)	6(1.2)	흑임자다식	5(0.9)	5(0.9)	10(1.8)		
糖釘類				녹말다식	2(0.4)	1(0.2)	3(0.6)		
	세 반 강 정	30(5.7)	85(16.0)	115(21.7)	콩 다 식	32(6.0)	7(1.3)	39(1.9)	
	산 자	40(7.5)	102(19.3)	142(26.8)	熟實菓類				
	들깨엿가정	20(3.8)	51(9.6)	71(13.4)		밤 초	13(2.5)	10(1.9)	23(4.4)
	콩엿강정	20(3.8)	41(7.7)	61(11.5)		대 추 초	5(0.9)	5(0.9)	10(1.8)
참깨엿강정	9(1.6)	22(4.2)	31(5.8)	울 란	4(0.8)	6(1.1)	10(1.9)		
煎菓類				조 란	1(0.2)	2(0.4)	3(0.6)		
	생 강 전 과	37(7.0)	59(11.1)	96(18.1)	잣 박 산	7(1.3)	5(0.9)	12(2.2)	
	연근전과	13(2.5)	34(6.4)	47(8.9)	꽃 감 씬	14(2.6)	16(3.0)	30(5.6)	
	당근전과	17(3.2)	19(3.6)	36(6.8)					
모과전과	11(2.1)	3(0.6)	14(2.7)						

III. 結果 및 論議

1. 조사대상주부의 연령, 학력 및 거주지 분포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주부의 연령은 40~49세가 59.8%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국졸이 53.2%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 분포는 농어촌이 4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도시, 대도시, 소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도시로 갈수록 설문지 회수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2. 韓菓類의 利用實態

1) 가정에서 이용하는 한과류의 종류

조사대상자의 가정에서 이용하는 한과류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밀과류 4종, 다식류 6종 및 속실과류 6종으로 총 25종이었다.

각 한과별로 조사대상자의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된 빈도수를 전체 조사대상자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이용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유밀과류와 강정류의 이용율이 전과류, 다식류 및 속실과류의 이용율보다 높았고 그중 유밀과류의 이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식류와 속실과류의 이용율은 아주 낮았다.

20% 이상의 이용율을 나타낸 한과는 약과(74.7%), 산자(26.8%), 타래과(22.6%), 세반강정(21.7%) 등 4종뿐이었고, 5% 이하의 낮은 이용율을 나타낸 한과는 매갓과, 모과전과, 밤다식, 송화다식, 흑임자다식, 녹말다식, 콩다식, 밤초, 대추초, 울란, 조란 및 잣박산 등 12종이었던 바 현재 조사대상자의 가정에서 한과류의 이용율이 낮고 이용되는 한과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가정에서 이용하는 한과의 종류와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이용하는 한과의 종류는 동일했으나 그 제조율은 아주 낮은 편이어서 10% 이상의 제조율을 나타낸 것은 약과(33.6%)와 타래과(19.8%) 2종뿐이었다.

〈표 3〉 명절에 이용하는 한과류

N=530, N(%)

한과명	이용시기	설 날	추 석	한과명	이용시기	설 날	추 석
油蜜菓類				茶食類			
약 과		188(35.5)	113(21.3)	쌀 다 식		39(7.4)	18(3.4)
만 두 과		73(13.8)	13(2.5)	밤 다 식		18(3.4)	10(1.9)
타 래 과		32(6.0)	28(5.3)	송화다식		15(2.8)	4(0.8)
매 갓 과		10(1.9)	4(0.8)	흑임자다식		18(3.4)	6(1.1)
糠釘類				녹말다식		4(0.8)	2(0.4)
세 반 강 정		88(16.6)	20(3.8)	콩 다 식		32(6.0)	7(1.3)
산 자		45(8.5)	45(8.5)	熟實菓類			
들깨엿가정		51(9.6)	10(1.9)	밤 초		12(2.3)	4(0.8)
콩엿강정		40(7.6)	13(2.5)	대 추 초		7(1.3)	4(0.8)
참깨엿강정		15(2.8)	3(0.6)	울 란		5(0.9)	7(1.3)
煎菓類				조 란		1(0.2)	3(0.6)
생 강 전 과		42(7.9)	19(3.6)	잣 박 산		2(0.4)	2(0.4)
연근전과		9(1.7)	6(1.1)	꽃 감 썸		24(4.5)	13(2.5)
당근전과		17(3.2)	6(1.1)	서양과자		53(10.0)	33(6.2)
모과전과		3(0.6)	5(0.9)				

또한 조사대상자의 가정에서 이용하는 한과의 종류와 구입하거나 친지 또는 한과 만드는 집에 의뢰하여 이용하는 한과의 종류는 동일했으나 만두과, 타래과, 쌀다식, 콩다식 등 몇몇 한과를 제외하고는 구입 또는 의뢰율이 높아서 조사대상자의 가정에서 이용하는 한과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직접 제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명절에 이용하는 한과류

조사대상자의 가정에서 명절에 이용하는 한과류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날과 추석 모두 유밀과류 4종, 강정류 5종, 전과류 4종, 다식류 6종 및 숙실과류 6종으로 총 25종이었다.

설날에는 약과(35.5%), 세반강정(16.6%), 만두과(13.8%), 들깨엿강정(9.6%), 산자(8.5%) 등의

<표 4> 의례시 이용하는 한과류

N=530, N(%)

이용시기 한과명	백 일	똥	생 일		회 갑	혼 레	제 사	상 레
			어 른	아 이				
油蜜菓類								
약 과	30(5.7)	54(10.2)	49(9.2)	44(8.3)	143(27.0)	141(26.6)	137(25.8)	7(1.3)
만 두 과	3(0.6)	4(0.8)	11(2.1)	17(3.2)	6(1.1)	7(1.3)	0(0.0)	0(0.0)
타 래 과	10(1.9)	12(2.3)	10(1.9)	15(2.8)	27(5.1)	22(4.2)	3(0.6)	0(0.0)
매 잣 과	2(0.4)	2(0.4)	0(0.0)	2(0.4)	9(1.7)	9(1.7)	1(0.2)	0(0.0)
糠釘類								
세반강정	13(2.5)	15(2.8)	8(1.5)	7(1.3)	85(16.0)	72(13.6)	18(3.4)	2(0.0)
산 자	10(1.9)	10(1.9)	8(1.5)	2(0.4)	10(1.9)	10(1.9)	70(13.2)	2(0.4)
들깨엿강정	2(0.4)	3(0.6)	1(0.2)	1(0.2)	10(1.9)	10(1.9)	2(0.4)	0(0.0)
콩엿강정	1(0.2)	1(0.2)	1(0.2)	1(0.2)	10(1.9)	3(0.6)	1(0.2)	0(0.0)
참깨엿강정	1(0.2)	1(0.2)	1(0.2)	1(0.2)	12(2.3)	5(0.9)	2(0.4)	0(0.0)
煎菓類								
생강전과	2(0.4)	4(0.8)	3(0.6)	3(0.6)	43(8.1)	41(7.7)	15(2.8)	0(0.0)
연근전과	0(0.0)	0(0.0)	1(0.2)	1(0.2)	22(4.2)	22(4.2)	5(0.9)	0(0.0)
당근전과	0(0.0)	3(0.6)	2(0.4)	2(0.4)	26(4.9)	26(4.9)	96(1.7)	0(0.0)
모과전과	2(0.4)	1(0.2)	0(0.0)	0(0.0)	9(1.7)	5(0.9)	2(0.4)	0(0.0)
茶食類								
쌀 다 식	9(1.7)	11(2.1)	8(1.5)	9(1.7)	43(8.1)	55(10.4)	49(9.2)	0(0.0)
밤 다 식	8(1.5)	5(0.9)	8(1.5)	4(0.8)	20(3.8)	21(4.0)	16(3.0)	0(0.0)
송화다식	3(0.6)	2(0.4)	3(0.6)	2(0.4)	19(3.6)	13(2.5)	13(2.5)	1(0.2)
흑임자다식	3(0.6)	2(0.4)	2(0.4)	3(0.6)	21(3.9)	21(4.0)	16(3.0)	0(0.0)
녹말다식	2(0.4)	1(0.2)	2(0.4)	2(0.4)	11(2.1)	9(1.7)	9(1.1)	0(0.0)
콩 다 식	2(0.4)	2(0.4)	2(0.4)	5(0.9)	28(5.3)	29(5.5)	31(5.8)	1(0.2)
熟實菓類								
밤 초	3(0.6)	3(0.6)	2(0.4)	1(0.2)	12(2.3)	6(1.1)	6(1.1)	0(0.0)
대 추 초	1(0.2)	1(0.2)	0(0.0)	0(0.0)	2(0.4)	6(1.1)	2(0.4)	0(0.0)
울 란	0(0.0)	0(0.0)	0(0.0)	2(0.4)	8(1.5)	4(0.8)	4(0.8)	0(0.0)
조 란	0(0.0)	0(0.0)	1(0.2)	0(0.0)	4(0.8)	1(0.2)	3(0.6)	0(0.0)
잣 박 산	0(0.0)	0(0.0)	0(0.0)	0(0.0)	4(0.8)	4(0.8)	1(0.2)	0(0.0)
꽃 감 썸	1(0.2)	1(0.2)	2(0.4)	3(0.6)	15(2.8)	15(2.8)	9(1.7)	2(0.4)
서 양 과 자	41(7.7)	15(2.8)	67(12.6)	94(17.7)	58(10.9)	68(12.8)	44(8.3)	1(0.2)

순으로 이용율이 높았고 모과전과, 녹말다식, 울란, 조란, 잣박산 등은 이용율이 1% 이하로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

추석에는 약과(21.3%)를 제외한 모든 한과류의 이용율이 10% 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그중 배자과, 참깨엿강정, 모과전과, 송화다식, 녹말다식, 밤초, 대추초, 조란, 잣박산 등은 이용율이 1% 이하로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명절음식으로 한과류가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었고 추석보다는 설날에 한과류의 이용율이 높았으며 추석, 설날 모두 약과의 이용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양과의 이용율은 설날에는 10%로서 약과, 만두과, 세반강정 등을 제외한 한과류의 이용율보다 높았고 추석에는 6.2%로서 약과와 산자를 제외한 한과류의 이용율보다 높았던 바 명절날 조차도 우리 고유의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의례시 이용하는 한과류

조사대상자의 가정에서 각종 의례시 이용하는 한과류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의례중 회갑, 혼례, 제사시에는 백일, 돛, 어른과 아리의 생일, 상례시보다 한과류의 이용율이 높은 경향이었고 그중 회갑에 한과류의 이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백일, 돛, 상례시에는 한과류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의례시 유밀과류와 강정류의 이용율이 전과류, 다식류 및 속실과류의 이용율보다 높은 경향이었고 한과류중 약과의 이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속실과류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

의례시 5% 이상의 이용율을 나타낸 한과는 백일, 돛, 어른과 아리의 생일에는 약과(5~10%)이었고 회갑에는 약과(27.0%), 세반강정(16.0%), 생강전과(8.1%), 쌀다식(8.1%) 및 타래과(5.1%)이었으며 혼례에는 약과(26.6%), 세반강정(13.6%), 쌀다식(10.4%), 생강전과(7.7%) 및 콩다식(5.5%)이었다. 또한 제사에는 약과(25.8%), 산자(13.2%), 쌀다식(9.1%) 및 콩다식(5.8%)이 5% 이상의 이용율을 나타냈다.

한편 양과의 이용율은 아리의 생일에(17.7%) 가장 높았고 그밖에 혼례, 어른의 생일, 회갑에도 그

이용율이 1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백일, 어른과 아리의 생일에는 양과가 모든 한과류보다 많이 이용되었고 돛, 회갑, 혼례에는 약과와 세반강정을 제외한 한과류보다, 제사에는 약과, 산자, 쌀다식을 제외한 한과류보다 양과의 이용율이 높았던 바 의례시조차도 우리 고유의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한과 만들기에 대한 의견

앞으로 한과 제조에 대해서 전체조사대상주부들중 48.3%가 시판제품을 구입하겠다. 25.6%가 친지나 한과 만드는 집에 의뢰하겠다. 21.9%가 계속 집에서 만들겠다는 분포를 보여 주었던 바 앞으로 가정에서 이용하는 한과의 대부분이 시판제품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표 5> 앞으로 한과 만들기에 대한 의견

의견	N	%
계속 집에서 만들겠다	116	21.9
시판제품을 구입하겠다	256	48.3
친지나 한과 만드는 집에 의뢰하겠다	136	25.6
무응답	32	4.2
계	530	100.0

3. 市販 轉業類에 對한 調査

시판제품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주부의 연령, 학력별로 시판 한과류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판제품을 구입하는 이유

조사대상주부들이 시판제품을 구입할 경우 그 이유를 알아 본 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의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간편해서가 총응답자의 64% 정도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소량 필요해서(18%)이었으며 그밖에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맛이 좋아서(4%),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서(3%),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1%)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는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증가하고 바쁜 현대 사회에서 조리의 간

편화를 통해 식생활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볼 수 있다.
 고자 하는 현대 식생활관리자의 의식을 반영해 준다 또한 39세 이하의 젊은 주부와 고졸 이상의 학력이

〈표 6〉 시판제품을 구입하는 이유 N(%)

구분	연령				학 력				
	39세이하	40~49세	50세이상	계	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계
구입하는 이유									
간편해서	33 (55.9)	146 (65.7)	60 (65.9)	239 (64.8)	125 (68.3)	49 (69.0)	29 (54.7)	18 (48.6)	221 (64.2)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맛이 좋아서	2 (3.4)	7 (3.2)	6 (6.6)	15 (4.1)	6 (3.3)	3 (4.2)	3 (5.7)	2 (5.4)	14 (4.1)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1 (1.7)	4 (1.8)	1 (1.1)	6 (1.6)	2 (1.1)	2 (2.8)	2 (3.8)	0 (0.0)	6 (1.7)
만들줄 몰라서	7 (11.9)	15 (6.8)	6 (6.6)	28 (7.6)	14 (7.7)	3 (4.2)	6 (11.3)	4 (10.8)	27 (7.8)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1 (1.7)	11 (5.0)	1 (1.1)	13 (3.5)	4 (2.2)	4 (5.6)	3 (5.7)	1 (2.7)	12 (3.5)
소량 필요해서	15 (25.4)	36 (16.4)	17 (18.7)	68 (18.4)	32 (17.5)	10 (14.1)	10 (18.9)	12 (32.4)	64 (18.6)
계	59 (16.0)	219 (59.3)	91 (24.7)	369 (100.0)	183 (17.5)	71 (20.6)	53 (15.4)	37 (10.8)	344 (100.0)
비 고	$\chi^2=10.2$ $df=10$ N.S.				$\chi^2=16.2$ $df=15$ N.S.				

〈표 7〉 시판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 N(%)

구분	연령				학 력				
	39세이하	40~49세	50세이상	계	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계
구입하지 않는 이유									
맛이 없어서	3 (9.1)	10 (10.6)	5 (12.5)	18 (10.8)	9 (10.3)	1 (3.0)	3 (11.5)	3 (25.0)	16 (10.1)
비위생적이어서	8 (24.2)	17 (18.1)	5 (12.5)	30 (18.0)	11 (12.6)	9 (27.3)	7 (26.9)	2 (16.7)	29 (18.4)
믿을 수 없어서	8 (24.2)	17 (18.1)	3 (7.5)	28 (16.8)	14 (16.1)	5 (15.2)	6 (23.1)	3 (25.0)	28 (17.7)
값이 비싸서	7 (21.2)	16 (17.0)	6 (15.0)	29 (27.4)	18 (20.7)	5 (15.2)	4 (15.4)	1 (8.3)	28 (17.7)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어서	7 (21.2)	34 (36.2)	21 (52.5)	62 (37.1)	35 (40.2)	13 (39.4)	6 (23.1)	3 (25.0)	57 (36.1)
계	33 (19.8)	94 (56.3)	40 (24.0)	167 (100.0)	87 (55.1)	33 (20.9)	26 (16.5)	12 (7.6)	158 (100.0)
비 고	$\chi^2=10.1$ $df=8$ N.S.				$\chi^2=12.8$ $df=12$ N.S.				

높은 주부들중 10% 정도가 만들줄 몰라서 시판제품을 구입한다고 응답한 결과는 특기할만하다고 생각된다.

2) 시판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

시판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어서가 총응답자의 36% 정도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비위생적이어서(18%), 값이 비싸서(18%), 믿을 수 없어서(17%), 맛이 없어서(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어서라는 이유에 대해 연령별 응답분포는 50세 이상, 40~49세, 39세 이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 분포는 국졸, 중졸, 대졸, 고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던 바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주부들에게는 아직도 한과류를 내 손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남아 있었으나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주부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비위생적이어서, 믿을 수 없어서, 값이 비싸서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주부일수록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는 경향이였다.

3) 시판 한과류에 대한 평가

① 맛

시판제품의 맛에 대한 평가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의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즉 총응답자의 38% 정도가 보통이다, 30% 정도가 약간 좋다, 26% 정도가 아주 좋다고 답해서 56% 정도가 좋다고 평가한 반면 나쁘다고 평가한 경우는 6%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주부의 학력에 따라 학력이 낮은 주부일수록 시판제품의 맛을 유의적으로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였다. ($p < 0.05$)

② 색

시판제품의 색에 대한 평가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의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즉 총응답자의 41% 정도가 보통이다, 25% 정도가 약간 좋다, 25% 정도가 아주 좋다고 답해서 약 50% 정도가 좋다고 평가한 반면 9% 정도만이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③ 가격

시판제품의 가격에 대한 평가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의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부정적인

<표 8> 시판제품의 맛에 대한 평가

구 분	연 령				학 력					N(%)
	39세이하	40~49세	50세이상	계	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계	
맛에 대한 평가										
아주 좋다	22 (28.9)	82 (27.4)	28 (22.8)	132 (26.5)	76 (28.9)	28 (29.8)	12 (17.4)	8 (20.0)	124 (26.6)	
약간 좋다	21 (27.6)	86 (28.8)	39 (31.7)	146 (29.3)	73 (27.8)	31 (33.0)	228 (40.6)	7 (17.5)	139 (29.8)	
보통이다	28 (36.8)	111 (37.1)	53 (43.1)	192 (38.6)	100 (38.0)	32 (34.0)	23 (33.3)	22 (55.0)	177 (38.0)	
약간 나쁘다	4 (5.3)	17 (5.7)	3 (2.4)	24 (4.8)	12 (4.6)	3 (3.2)	6 (8.7)	1 (2.5)	22 (4.7)	
아주 나쁘다	1 (1.3)	3 (1.0)	0 (0.0)	4 (0.8)	2 (0.8)	0 (0.0)	0 (0.0)	2 (5.0)	4 (0.9)	
계	76 (15.3)	299 (60.0)	123 (24.7)	498 (100.0)	26.3 (56.4)	94 (20.2)	69 (14.8)	40 (8.6)	466 (100.0)	
비 고	$\chi^2 = 5.5$ $df = 8$ N.S.				$\chi^2 = 25.6$ $df = 12$ $p < 0.05$					

반응을 보여 주었다. 즉 총응답자의 49% 정도가 보통이다. 28% 정도가 약간 비싸다. 9% 정도가 아주 비싸다로 답해서 37% 정도가 비싸다고 평가한 반면

14% 정도만이 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시판제품의 가격을 더 비싸다고 평가하는 경향이였다.

〈표 9〉 시판제품의 색에 대한 평가

N(%)

구 분	연 령				학 력				
	39세이하	40~49세	50세이상	계	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계
색에 대한 평가									
아주 좋다	25 (32.5)	75 (24.8)	28 (22.8)	128 (25.4)	71 (26.8)	24 (25.5)	15 (21.1)	10 (25.0)	120 (25.5)
약간 좋다	13 (16.9)	80 (26.4)	33 (26.8)	126 (25.0)	69 (26.0)	25 (26.6)	18 (25.4)	7 (17.5)	119 (25.3)
보통이다	31 (40.3)	125 (41.3)	49 (39.8)	205 (40.8)	106 (40.0)	37 (39.4)	31 (43.7)	17 (42.5)	191 (40.6)
약간 나쁘다	7 (9.1)	17 (5.6)	12 (9.8)	36 (7.2)	14 (5.3)	8 (8.5)	6 (8.5)	5 (12.5)	33 (7.0)
아주 나쁘다	1 (1.3)	6 (2.0)	1 (0.8)	8 (1.6)	5 (1.9)	0 (0.0)	1 (1.4)	1 (2.5)	7 (1.5)
계	77 (15.3)	303 (60.2)	123 (24.5)	503 (100.0)	265 (56.4)	94 (20.0)	71 (15.1)	40 (8.5)	470 (100.0)
비 고	$\chi^2=7.7$ $df=8$ N.S.				$\chi^2=7.4$ $df=12$ N.S.				

〈표 10〉 시판 제품의 가격에 대한 평가

N(%)

구 분	연 령				학 력				
	39세이하	40~49세	50세이상	계	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계
가격에 대한 평가									
아주 싸다	2 (2.6)	10 (3.3)	4 (3.3)	16 (3.2)	9 (3.4)	4 (4.3)	1 (1.4)	1 (2.6)	15 (3.2)
약간 싸다	6 (7.9)	29 (9.6)	17 (13.9)	52 (10.4)	28 (10.5)	10 (10.8)	7 (10.1)	3 (7.7)	48 (10.3)
보통이다	32 (42.1)	153 (50.8)	62 (50.8)	247 (49.5)	138 (51.9)	43 (46.2)	33 (47.8)	17 (43.6)	231 (49.5)
약간 비싸다	28 (36.8)	82 (27.2)	32 (26.2)	142 (28.5)	70 (26.3)	28 (30.1)	19 (27.5)	14 (35.9)	131 (28.1)
아주 비싸다	8 (10.5)	27 (9.0)	7 (5.7)	42 (8.4)	21 (7.9)	28 (8.6)	9 (13.0)	4 (10.3)	42 (9.0)
계	76 (15.2)	301 (60.3)	122 (24.4)	499 (100.0)	266 (57.0)	93 (19.9)	69 (14.8)	39 (8.4)	467 (100.0)
비 고	$\chi^2=7.0$ $df=8$ N.S.				$\chi^2=5.2$ $df=12$ N.S.				

④ 위생면

시판제품의 위생면에 대한 평가는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의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총응답자의 69% 정도가 보통이다 이하로 평가했던 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주부의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시판제품의 위생면에 대해 유의적으로 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각각 $p < 0.01$) 그리고 대졸 이상 주부의 50% 정도가 시판제품의 위생면에 대해 나쁘다고 평가한 결과는 특기할 만 하다고 생각된다.

⑤ 포장

시판제품의 포장에 대해서는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의 연령과 학력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즉 보통이다라고 평가한 주부가 총응답자의 37% 정도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약간 좋다(30%)와 아주 좋다(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6% 정도만이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주부의 학력에 따라 학력이 낮은 주부일수록 시판제품의 포장을 유의적으로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p < 0.05$)

⑥ 저장성

시판제품의 저장성에 대한 평가는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의 연령과 학력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즉 총응답자의 42% 정도가 보통이다, 23% 정도가 약간 좋다, 16% 정도가 아주 좋다고 답해서 39% 정도가 좋다고 평가한 반면 19% 정도만이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주부의 연령에 따라 연령이 높은 주부일수록 시판제품의 저장성에 대해 유의적으로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p < 0.01$)

⑦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

시판제품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격(32%)이 가장 높게 지적되었고 그 다음이 위생면(29%)이었으며 맛(13%), 저장성(11%), 포장(9%) 및 색(6%)에 대한 지적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던 바 이는 앞에서 논의된 시판제품의 품질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상의 주부는 위생면과 가격의 순위로, 중졸 주부는 위생면과 가격을 같은 순위로, 국졸 주부는 가격, 위생면의 순위로 지적하였던 바 학력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여

<표 11> 시판제품의 위생면에 대한 평가

N(%)

구 분	연 령				학 력				
	39세이하	40~49세	50세이상	계	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계
위생면에 대한 평가									
아주 좋다	7 (9.5)	39 (13.0)	9 (7.4)	55 (11.1)	35 (13.3)	8 (8.9)	6 (8.7)	2 (5.0)	52 (11.0)
약간 좋다	12 (16.2)	50 (16.7)	36 (29.5)	98 (19.8)	62 (23.5)	18 (20.0)	11 (15.9)	3 (7.5)	94 (20.3)
보통이다	25 (33.8)	124 (41.5)	40 (41.0)	199 (40.2)	110 (41.7)	30 (33.3)	27 (39.1)	15 (37.5)	182 (39.3)
약간 나쁘다	21 (28.4)	74 (24.7)	24 (19.7)	119 (24.0)	47 (17.8)	34 (37.8)	15 (21.7)	17 (42.5)	113 (24.4)
아주 나쁘다	9 (12.2)	12 (4.0)	3 (2.5)	24 (4.8)	10 (3.8)	0 (0.0)	10 (14.5)	3 (7.5)	23 (5.0)
계	74 (14.9)	299 (60.4)	122 (4.6)	495 (100.0)	264 (57.0)	90 (19.4)	69 (14.9)	40 (8.6)	463 (100.0)
비 고	$\chi^2 = 23.0$ $df = 8$ $p < 0.01$				$\chi^2 = 44.9$ $df = 12$ $p < 0.01$				

〈표 12〉 시판제품의 포장에 대한 평가

N(%)

구 분	연 령				학 력				
	39세이하	40~49세	50세이상	계	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계
포장에 대한 평가									
아주 좋다	12 (15.4)	57 (18.9)	18 (14.9)	87 (17.4)	48 (18.1)	12 (13.0)	18 (25.4)	3 (7.7)	81 (17.3)
약간 좋다	19 (24.4)	92 (30.6)	37 (30.6)	148 (29.6)	87 (32.8)	30 (32.6)	18 (25.4)	8 (20.5)	143 (30.6)
보통이다	32 (41.0)	107 (35.5)	47 (38.8)	186 (37.2)	95 (35.8)	37 (40.2)	18 (25.4)	19 (48.7)	169 (36.2)
약간 나쁘다	10 (12.8)	36 (12.0)	17 (14.0)	63 (12.6)	30 (11.3)	9 (9.8)	15 (21.1)	5 (12.8)	59 (12.6)
아주 나쁘다	5 (6.4)	9 (3.0)	2 (1.7)	16 (3.2)	5 (1.9)	4 (4.3)	2 (2.8)	4 (10.3)	15 (3.2)
계	78 (15.6)	301 (60.2)	121 (24.2)	500 (100.0)	265 (56.7)	92 (19.7)	71 (15.2)	39 (8.4)	467 (100.0)
비 고	$x^2=6.3$ $df=8$ N.S.				$x^2=25.6$ $df=12$ $p<0.05$				

〈표 13〉 시판제품의 저장성에 대한 평가

N(%)

구 분	연 령				학 력				
	39세이하	40~49세	50세이상	계	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계
저장성에 대한 평가									
아주 좋다	15 (20.5)	51 (17.0)	11 (9.1)	77 (15.6)	47 (17.7)	13 (14.4)	11 (16.2)	4 (10.0)	75 (16.2)
약간 좋다	8 (11.0)	63 (21.0)	39 (32.2)	110 (22.3)	64 (24.2)	19 (21.1)	17 (25.0)	5 (12.5)	105 (22.7)
보통이다	33 (45.2)	123 (41.0)	54 (44.6)	210 (42.5)	109 (41.1)	36 (40.0)	21 (30.9)	25 (62.5)	191 (41.3)
약간 나쁘다	7 (9.6)	51 (17.0)	16 (13.2)	74 (15.0)	36 (13.6)	19 (21.1)	12 (17.6)	4 (10.0)	71 (15.3)
아주 나쁘다	10 (13.7)	12 (4.0)	1 (0.8)	23 (4.7)	9 (3.4)	3 (3.3)	7 (10.3)	2 (5.0)	21 (4.5)
계	73 (14.8)	300 (60.7)	121 (24.5)	494 (100.0)	265 (57.2)	90 (19.4)	68 (14.7)	40 (8.6)	463 (100.0)
비 고	$x^2=34.4$ $df=8$ $p<0.01$				$x^2=19.5$ $df=12$ N.S.				

기에서 대졸 이상의 주부중 50% 정도가 시판제품의 위생면을 가장 개선할 점으로 본 것은 특기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연령별로는 전연령층에서 가격, 위생

면의 순위로 지적하였던 바 연령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시판제품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

N(%)

개선할 점	연령				학 력				
	39세이하	40~49세	50세이상	계	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계
맛	6 (8.3)	41 (14.2)	12 (10.1)	59 (12.3)	37 (14.1)	10 (12.0)	7 (10.6)	2 (5.6)	56 (12.5)
색	4 (5.6)	18 (6.2)	9 (7.6)	31 (6.5)	14 (5.3)	7 (8.4)	6 (9.1)	1 (2.8)	28 (6.3)
가격	24 (33.3)	90 (31.1)	40 (33.6)	154 (32.1)	93 (35.4)	26 (31.3)	16 (24.2)	9 (25.0)	144 (32.1)
포장	3 (4.2)	23 (8.0)	18 (15.1)	44 (9.2)	30 (11.4)	3 (3.6)	6 (9.1)	3 (8.3)	42 (9.4)
저장성	12 (16.7)	29 (10.0)	14 (11.8)	55 (11.5)	25 (9.5)	11 (13.3)	8 (12.1)	3 (8.3)	47 (10.5)
위생면	23 (31.9)	88 (30.4)	26 (21.8)	137 (28.5)	64 (24.3)	26 (31.3)	23 (34.8)	18 (50.0)	131 (29.1)
계	72 (15.0)	289 (60.2)	119 (24.8)	480 (100.0)	263 (58.7)	83 (18.5)	66 (14.7)	36 (8.0)	448 (100.0)
비 고	$\chi^2=14.6$ $df=10$ N.S.				$\chi^2=21.0$ $df=15$ N.S.				

IV. 結 論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530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1987년 11월 16일에서 1987년 11월 28일 사이에 명절, 의례시 한과류의 이용실태 및 시판 한과류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던 바 그 결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가정에서 이용하는 한과류는 유밀과류 4종, 강정류 5종, 전과류 4종, 다식류 6종 및 숙실과류 6종으로 총 25종이었으며 그중 유밀과류와 강정류의 이용율이 높았고 전과류, 다식류, 숙실과류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2) 조사대상자의 가정에서 20% 이상의 이용율을 나타낸 한과류는 약과(74.7%), 산자(26.8%), 타래과(22.6%), 세반강정(21.7%) 등 일부 유밀과류와 강정류뿐이었고 대부분의 한과류는 그 이용율이 5% 이하로서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3) 명절에 한과류의 이용율은 높지 않았으나 추석보다는 설날에 한과류의 이용율이 높았고 추석, 설날

모두 약과의 이용율이 가장 높았다.

4) 명절에 양과의 이용율은 설날에는 10%, 추석에는 6.2%로 나타나서 설날에는 약과, 만두과, 세반강정을 제외한 한과류보다, 추석에는 약과와 산자를 제외한 한과류보다 양과의 이용율이 높은 경향이었다.

5) 의례시 유밀과류와 강정류의 이용율이 전과류, 다식류, 숙실과류보다 높은 경향이었으며 각종 의례시 약과의 이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숙실과류의 이용율이 가장 낮았다.

6) 의례중 회갑, 혼례, 제사시에는 백일, 똥, 아이와 어른의 생일, 상례시보다 한과류의 이용율이 높았고 그중 회갑에 한과류의 이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백일, 똥, 상례시에는 그 이용율이 아주 낮았다.

7) 의례시 양과의 이용율은 아이의 생일에 17.7%로 가장 높았고 혼례, 어른의 생일, 회갑에도 그 이용율이 10% 정도로서 한과의 이용율보다 대체로 높은 경향이었다.

8) 앞으로 가정에서 직접 한과를 만들어 이용하겠다고 답한 주부는 총응답자의 21.9%로 미래 가정에서 이용하는 한과류의 대부분은 시판제품에 의존할

것으로 생각된다.

9) 조사대상주부들이 시판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간편해서(64%)가 가장 높은 이유였고 시판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어서(36%)가 가장 높은 이유이었다.

10) 조사대상주부들은 시판제품의 맛, 색, 포장 및 저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가격과 위생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시판제품의 맛과 포장은 주부의 학력에 따라 학력이 낮을수록($p < 0.05$), 저장성은 주부의 연령에 따라 연령이 높을수록($p < 0.01$) 유의적으로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시판제품의 위생면은 주부의 연령에 따라 연령이 낮을수록($p < 0.01$), 학력에 따라 학력이 높을수록($p < 0.01$) 유의적으로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11) 시판제품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가격(32%)과 위생면(29%)에 대한 지적이 높았고 특히 대졸 이상의 주부중 50% 정도가 위생면을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명절 및 의례시조차도 한과류의 이용율이 낮고 이용하는 한과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며 대부분의 한과가 시판제품에 의존하여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부의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내 손으로 직접 한과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 주부의 학력이 높아지고 세대교체가 이루어 질 것을 고려하면 시판제품에 대한 의존율은 더욱 증가하리라 예측된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판제품의 품질개선과 공업화를 통한 한과류의 대량보급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시판제품의 품질에 대한 일부지역 주부들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맛, 색 등 관능적인 면과 포장 및 저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고 가격 및 위생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던 바 앞으로 전래 한과류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위생적이고 가격이 저렴한 한과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고 또한 소비자들도 우리의 전통식품을 아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이철호, 맹영선, 한과류의 문헌적 고찰, 한국식문화학회지, 2(1):55-69, 1987.
2. 조신호, 우리고유식의 원류를 캔다—과정류—, 식생활 3월호, pp. 62-66, 1985.
3. 이효지, 윤서석, 조선시대 궁중연회음식중 과정류의 분석적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1(3):197-210, 1986.
4. 이철호, 맹영선, 안현숙, 한과류의 관능적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2(1):71-79, 1987.
5. 윤서석, 한국의 전래생활, pp. 98-99, 수확사, 1983.
6. 윤서석, 한국음식, pp. 53-54, 수확사, 1985
7. 윤서석, 한국식생활사, p. 19, 신광출판사, 1985.
8. 정순자, 우리나라 병과류에 대한 소고, 단국대 논문집, 제 7집, pp. 539-565, 1973.
9. 서승희, 윤석인, 이철, 주부들의 한과류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2(2):103-116, 1987.